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부활절 성찬식 은혜 중에 마쳐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5일 I, II, III, IV부 예배시 부활절을 맞이하여 90년도 제2차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성찬식에는 8,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지난 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였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Y집사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집사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아홉의 피지도 못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S양이 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딸을 앞서 보내신 집사님의 아픈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열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백지장같은 얼굴을 하고도 기도를 받고 싶다면서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난 시간에 제 손을 붙잡던 S양의 모습이 아직도 눈 앞에 선합니다. 하나님

은 따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도 눈물도 없는 평화의 나라로 데려 가셨으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따님을 데리고 오실 터이니 우리도 준비 잘하여 주님 앞에서 그 러운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종 윤 목사

어둠을 가르느 소망의 빛 본당 종탑 십자가 점등식



십자가가 점등되는 순간을 지켜보는 성도들

본당을 헌당한 이후로도 공간적 취약성과 유지 보수상의 난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본당 종탑의 십자가에 전등 설치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상 83미터의 십자가에 전등을 설치하게 되어 지난 4월 13일 저녁 7시 30분 본당 앞 마당에서 점등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십자가에 설치된 수은등들은 해가 떨어지면 자동 점등되는데, 어둠을 가르며 세상을 밝히게 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소망을 얻으며,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제 6 대 안수집사 및 제34대 권사 임직식

우리 교회는 오늘(4월 22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 제6대 피택 안수집사와 제34대 피택 권사의 임직식을 갖는다.

오늘 취임하는 20명의 피택 안수집사와 40명의 피택 권사는 작년 10월 17일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안수집사들은 종강시험(3월 27일 실시)과 피택 권사들은 과제물 제출을 통하여 엄격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직분자로서의 소망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될 예정이다.

제4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8일 수요일 I부 예배와 II부 예배시에 이종윤 위임목사의 집례로 제4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41명이 학습을, 26명이 세례를, 1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2명이 입교를, 1명이 개종을 했다.

미국장로교회 한인 교역자 수양회



멀리 미국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역자 42명 이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수양회 기간 동안 모두 일곱차례의 세미나와 두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교회의 갱신과 부흥 성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충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교회학교 부활절 기념 행사

4월 15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교회학교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갖가지 행사를 가졌다.

유치부는 선생님의 달걀 숨색을 자랑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이 달걀들은 십사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부활절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도 열었는데, 작품들은 소석관에 전시된다.

고등부는 오후 1시 30분 나사렛 홀에서 독창과 성극발표, 찬양 등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였다.

한편 청년1부는 조별로 연습해 왔던 찬양과 율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들은 중앙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시각장애인 이재혁 성도의 아름다운 피아노 독주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전국목회자세미나 제4학기 종강 사회봉사 다짐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이 주관한 전국 목회자세미나 제4학기가 지난 4월 16일 종강하였다.

종강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창조적인 목회자들이 되자.”고 하였다.

전국 각처에서 초교과적으로 모인 목회자들은 지난 2월 12일 개강 이후 10주간 동안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사회봉사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호산나 찬양대 부활절 기념 음악예배 드려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15일 저녁 7시에 부활절 기념 음악예배를 드렸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같이 시작된 최덕신 작곡의 “증인들의 고백”을 송숙자 집사의 지휘와 김은백 집사의 반주에 맞추어 호산나찬양대가 불렀다.

“발을 씻기셨네”, “겻세마네의 기도” 등 아홉곡의 노래로 독창과 중창 그리고 합창이 어울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별히 광영목 집사, 김순자 집사가 함께 한 나레이션도 찬양 못지 않게 은혜로웠다.

직장복음화의 기수 충현실업인선교회 창립총회

우리 교회의 실업인들이 성경적 교리에 근거하여 복음전파와 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2일 저녁 7시에 선교관 3층 교역자회의실에서 충현실업인선교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32명의 회원이 모인 이날 1부에서는 오태희 장로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종윤 위임목사는 요한복음 21장 11절의 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아침”

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제2부는 정하우 장로의 사회로 본 선교회의 창립취지 설명과 임원선출이 있었고 안건 토의를 한 후 김광석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에 임광식 장로, 부회장에 남선우 장로, 이영렬 집사, 최삼조 집사, 서기에 이부성 집사, 부서기에 배한웅 집사, 회계에 김연근 집사, 부회계에 김기철 집사가 선출되었다.

교회와 국가를 살펴보면 몇가지 모호성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교회가 권위주의, 잘못된 신학이나 신조, 그리고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속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벗어지는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모호성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국가는 악마의 권세에 의해 지배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했고, 요한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멸망받아야 할 불경한 바벨론”으로 묘사를 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국가를 악마적 권세로 보는 반면에 또한 국가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고 바울은 지적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그 권세를 활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딤후 2:1,2).

그러나 국가는 제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악마의 시녀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에 교회는 국가의 기능을 고맙게 여기고 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칼빈은 우리들이 국가를 외적인 수단이나, 또는 국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일을 돕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국가에 도전해야 할 것이며 심지어 국가법에 불복종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제도를 설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 권력자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할 경우 누구보다도 존경과 복종을 해야 한다. 다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부나 지도자를 바꾸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합법성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그것을 시민정치의 외적인 도덕성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상의 지배권은 구별된다. 그러나 이 구별이 모든 정부는 부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 정부의 목적은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보호, 유지 그리고 진척시키는데 있으며, 반면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과업에 헌신하고, 모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정부가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범했을 경우 교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비판하여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국가와 교회가 두 개의 아주 다

른 권위의 영역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 두 기관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상호 보충적이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과 가이사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합법적 권위에 대해 하나님만이 권위자(가이사의 권위는 부인됨), 가이사만이 권위자(하나님의 권위는 부인됨), 가이사가 우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권위 등 네 가지 가능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

1. 하나님만 권위

기독교인들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세속의 영역인 정치나 국가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세속 문화 밖에서 살기를 원하며 직장도 반드시 기독교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도록 권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국가의 합법적 권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나 지도자나 권력자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궁극적 권위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다른 정부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법을 잘 준수하고 바르게 시행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 것이므로 도덕성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국가의 정신적, 영적 지주가 되고 지혜의 근원이며 방향 제시를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3. 가이사가 우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과 가이사는 모두 다 권세가 있으나 가이사의 권세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빌라도가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예수를 지주할 의도가 없었다. 그를 무죄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를 석방시키려는 노력도 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냈고 마지막엔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군중에게 택하도록까지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

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두 절을 잇고 있는 접속사를 ‘그리고’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번역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의 주권 영역과 독립된 것으로 생각했겠는가. 헤롯 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렇지 않은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이사는 권세가 있으나 하나님 권세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요 19:11)고 하셨다.

기독교인은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고 있다. 느브갓네살의 꿈(금, 은, 동, 철의 신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도 주시고 시간과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왕의 말보다 우위에 두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강한 억압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 가야 하며 동시에 모든 면에 복종할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심지어 고양이도 쥐를 죽이는 힘도, 거미가 파리를 잡는 힘도 모든 종류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바르고 적절하게 그 힘을 사용하도록 하고(딤후 2:1-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비난과 공격보다는 국방, 교육, 공의와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영역과 기능이 다르므로 영역 자주권(Sphere Sovereign)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성경적이다(정·교분리 원칙).

예수 그리스도 개인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차원에서 양심을 따라(롬 13:5) 깊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방향을 시정해 주고 잘못된 것은 용기를 북돋아 주되 현실 도피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회와 국가는 영육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진리는 성도의 판단을 돕는 척도가 될 것이다. 세상 권세(a power)는 상대적이라면 하나님의 권세(the power)는 절대적이다.

제2회 중헌복음심포지움 발제강의 요약

성경에서 본 교회와 국가



이 종 윤 목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통치도 인정을 하셨다. 빌라도에게 예의를 지켰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셨던 것이다.

첫째,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는 성경적 한계는 복음 선포에 관계되어 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선교활동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가 증가되자 지배자들은 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금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판단해 보라고 도전하였다(행 4:19, 20). 사도들은 위협과 곤경 속에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행 5:29-32). 이처럼 성도는 세상 권세가 요구하더라도 복음전도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복종의 한계는 기독교인의 행위와 도덕성에 있다. 어느 정부나 국가도 기독교인들에게 비도덕적이고 불신자의 행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가이사만의 권위

예수를 재판할 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에 왕이 없다”(요 19:15)라고 한 것은 가이사의 권위만 인정했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세속 권세만 인정하는 풍조가 전세계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상호관계 작용을 위해 삼권분립 제도를 만들고 인간 권세의 한계성을 인정하였다.

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함성을 지르자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했다.

4.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권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알려졌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66년에 열십당원들과 함께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현실 감각이 뛰어난 헤롯 당원들은 당시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고 통치자들을 지지하며 그들로부터 상당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은 극한적 대립 속에 있으면서도 이들 양자는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려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 예수께 질문한 세금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보다는 가부간에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저들의 계략이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번역된 주님의 말씀은 접속사 ‘그리고’로 두 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가 집중되어 왔다. 즉 가이사 곧 국가의 통치자가 비록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두 절 중 후자

주님 안에서 참 교제 나누는 제13교구 행당구역

박윤석·권사는 3년 전 행당 5구역으로 전입하는 심방카드를 넘겨 받고 당시 담 당 구역자였던 윤용규 목사와 함께 심방 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박 권사와 윤 목사의 심방을 받은 성도는 몇 해 전 구성전에서 김창인 목사의 설교에 모든 성도들이 감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은 에타게 찾으 며 울부짖었던 성도였다. 그때 함께 예배 드리던 박윤석 권사는 예배가 끝난 뒤 소 란스러웠던 쪽을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금 전의 그 성도는 앞을 못 보 는 젊은 청년이었다. 박 권사는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눈물을 글썽이며 가지고 있 던 전부를 그 청년의 씨늘한 두 손에 다집 하듯이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강하고 담

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면서 권 손을 한층 더 꼭 잡으며 함께 기도했었다. 그 이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성도 를 같은 구역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성도의 이름은 김희정, 나이는 31세. 우리 교회에서 10년간 신앙생활. 현재 청 년2부에 출석 중. 국민학교 시절 실명되 었으나 피아노 연주는 수준급. 이상은 김 희정 성도의 인적 사항이다.

김희정 성도의 집은 무학여고에서 금북 국민학교 방향으로 수많은 계단과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숨 쉴 사이도 없이 올라 가야 하는, 행당동에서도 제일 높은 고지 대에 위치해 있다. 김희정 성도는 보증금 50만원에 월 5만원짜리 단칸 사글세방에 서 살고 있었다.

금요일마다 모여 드리는 구역 예배 때 에 정이 담긴 음식조차 서로 나눌 수 없 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행당 5구역으 로 김희정 성도가 전입하게 된 것이었다.

그 날 이후 구역예배의 광고 시간에 김 희정 성도를 돕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구역원들은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 다 어렵게 살아가는 처지 에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섣뎁 내키지 않 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후 김희정 성도를 돕는 일은 조금씩 확산 되었으며 전행당구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3구역의 조병자 권찰, 4구역의 장선복 권찰, 박정숙 권찰, 5구역의 이귀래 권 사, 그밖에도 많은 구역 식구들이 그리스 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서로 손잡고 이 일에 협력하고 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나오는 5만원의 구제금 외에 쌀 2말, 연탄 100장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 고, 반찬은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돌 보아 주고 있다.

여러 구역 식구들이 한꺼번에 음식을 장만해와 찬장이 빈 그릇으로 충충히 채 워지는 것을 보면서 구역식구들은 성도간

의 참된 교제가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 런 보람만을 느끼게 되는 것도 아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의 일이었다. 좁고 가 파른 경사길이 눈으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었다. 그래서 박 권사와 몇몇 구역식 구들은 행여나 김희정 성도가 넘어질새라 길가의 얼음을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깨내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물려와 '왜 얼음을 깨느냐, 잘못하다가 시멘트 포 장까지 깨뜨리겠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눈초리를 주며 시비를 걸어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없는 주재에 무슨 구제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냐, 좀 편 히 예수 믿으면 어떠냐' 라는 비웃음을 당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도 행당구역 식구들은 자신 들이 처한 환경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아 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요즘과 같이 각박해져만 가는 세태 속에 서 이처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저희같이 부족한 가정을 이렇게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소박하게 반겨 주신 제7교구 한송규 집사님과 김 순실 집사님 댁은 교회 각 부서의 일꾼들 이 모인 열심 가정이다.

한송규 집사님은 몇 년 동안 계속하여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현금 창구에서 3부, 4부 예배시 회계를 맡 고 계시고 김순실 집사님은 초등5부 부감 과 여전도회 서기를 맡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한 집사님과 김 집사님 슬하에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딸 현정씨와 중학교 2 학년인 아들 중웅씨가 있는데 현정씨는 핸드벨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근자결성(勤者必成 : 부지런한 자가 반드시 성공한다)이라는 가훈을 가지고 기 독 가정의 본을 보이고 있는 이 가정은 순 종의 미덕 또한 중요시 한다.

■ 가정탐방

순종의 신앙으로 봉사하는 한송규·김순실 집사 가정



한 집사님과 김 집사님은 현정씨와 중웅씨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들이 자라

면서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 을 느낀다고 한다.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오래 전 서울에서 살 때 산길을 산책하 다가 바람에 실려오는 동구 밖 교회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는 여호

수아 5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 해 묵상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 어서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 하신다. 또한 한 집사님 가정을 성도의 탄원한 가 정생활을 담은 찬송가 305장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있고"를 즐겨 부른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 떤 것이냐는 질문에 두 분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희가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당부하 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충원가족 모두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세 기 등

천국 일꾼 양성



하 대 선 장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에까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눅18:17)

우리 중현교회의 새 기둥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 에 익은 기둥은 두 말할 나위도 없어 '천국일꾼 양성'이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의 기둥이 귀에 익은 만큼 온 정도의 관심과 생명이 모아졌으며, 오래 된 세월 만 큼 성장, 발전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짚어볼 만 할 때, 교육위원의 명백을 대립하고 있는 부족한 중 원, 주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통곡스러움 때문에 땀 들 때를 모르는 심정함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 다.

200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교회에 놀라운 영 향을 끼친 주일학교는 미국으로 건너가 교회학교로 발

전하여 미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적 성장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 던 유럽의 교회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리고 미국 교회는 1960년을 정점으로 교회학 교가 병들고 있다는 진단이 1970년대 초부터 많은 기 독교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내려지고 있다. 교회학교가 병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자체가 병들고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한 슬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의 교회학교는 결코 병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더욱이 우리 중현교회의 교회학교만은 언제까지나 푸 르고 싱싱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만치는 절된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 엇일까.

첫째로, 전교인에 잠으로 "천국일꾼 양성"의 중요 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육 부대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은 말 겨 주신 귀한 사명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교회의 교육이 념과 교육목적을 확실히 명심하여야 한다. 그와 동세 에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요강

과 커리큘럼을 편성하여 그 토대 위에 마련된 교재(현 재 권위 있는 필진에 의하여 편찬 작업이 추진중임)에 따라 순리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교육의 일선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고 스스로 말씀 위에 굳 게 서서 피교육자의 본이 되는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부단한 자기개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에 다.

넷째로, 당회를 비롯한 상급기관에서는 다른 두 기 둥에 못지 않게 교육의 기둥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 여 항상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평가, 그리고 애원했 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중현 제단에서 행식에 아닌 참된 교육에 이루어짐 으로부터, 전쟁 이 나라, 이 번식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 을 훌륭한 천국일꾼을 더욱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 정치·경제·사회·학계·교계 등 각 분야에 널리 퍼트림 으로부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고, 만약 한 자를 구제하는 열매도 출산하는 지도자들을 양육하 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 지 않는 바이다.

다음호 세기등은 박승준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지원교회를 다녀와서

믿음의 싹 키우는 못자리 북쌍교회

바울선교회 제4지회는 90년도에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북쌍교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바울선교회 제4지회는 지원 교회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그곳 교우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북쌍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날은 몹시 비가 내렸다. 그러나 회사에는 수일 전에 이미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전도위원회 농어촌 담당 부장이신 김경철 장로님과 바울선교회제4지회서기로 수고하시는 박상준 집사가 동행하기로 하였고, 바울선교회 협의회 회장인 김여순 집사님이 승용차를 제공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비가 온다고 지원 교회 방문을 연기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아침 일찍 성경, 찬송가, 카메라 등 간단한 준비물을 챙겨서 교회로 향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아마도 내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무국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약속한 세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바울 4지회의 일인테도 김여순 집사님은 사업장의 문을 닫고 승용차까지 제공해 주시고 동행을 해 주시는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적게나마 본받아 실천케 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문밖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원주를 지나서 치악산 계곡을 옆으로 하고 단양을 경유해서 잘 포장된 국도를 따라 영월을 향해 조심스럽게 달렸다. 국도를 벗어나 500여 미터의 야산 마루턱에 오르니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화트인 시원한 별관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 저편으로는 50여 가구는 될만한 농가가 뒹뒹뒹 자리잡고 있었다. 그 동리 왼쪽의 나즈막한 언덕 위에 파란 지붕의 아담한 교회가 보였다. 유유히 흐르는 농촌마을, 파란 지붕의 교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고, 그 뒤로는 오대산 줄기의 높고



낮은 산들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병풍을 두른 듯한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였다.

꾸물꾸물 산길을 내려와서 강을 지나 교회 앞에 당도하니 11시 30분. 서울을 출발하여 3시간 30분 정도 걸린 셈이다. 아직도 비는 계속 내리는데 60세는 더 되어 보이는 김경 양복정장의 목사님이 여러 개의 우산을 들고 차 옆으로 황급히 달려 오셨다.

교회는 약 8년 전에 세워졌으며, 그 동안 담임목사가 두 번이나 교체되었다고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다. 지금 시무하시는 목사님은 2년 전에 이곳으로 부임하셨으며 아들과 사위가 선교사로 활동중이고 막내딸이 지난 3월 1일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사모님과 내외분이 이 지역 주민의 영혼 구원 사업에 전념하고 계셨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뺨을 묻을 작오라고 하셨다. 노 목사님의 사명감에 차 있는 결심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숙연케 하였다. 우리는 준비해간 지원금 십만 원을 목사님께 드렸다. 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 주십니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현교회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요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날처럼 십만 원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껴 보기도 오랜만의 일 같았다. 우리 일행은 사모님께서 손수 차리신

점심상을 받았다. 부락의 형편과 목사님의 전도 전략을 들으면서 식사를 맛있게 들었다.

그 부락에는 120여 가구가 있으며, 주일예배에는 14~15명이 참석하고, 주일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수는 30여 명이라고 목사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목사님께서 부락의 곳은 일이나 부락공동으로 벌이는 사역에도 참여하여 마을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노인이 계시는 집에는 자주 심방을 하신다.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에는 반기 주지 않더라도 매일 심방을 하여 환자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할아버지께서 상차를 하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병석에 계실 때 계속되는 목사님의 정성어린 심방과 기도에도 감명을 받고 교회에 나올 뜻을 비추었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도시로 떠나는 교인이 생기면 온 교회가

팅 빈 것 같고 허전하여 쓸쓸함을 금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도시로 나가 큰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 농촌 교회는 법씨를 뿌려서 모가 자라는 모판과 같아서 목사님은 모판을 잘 관리하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사명감을 갖고 목회를 하신다고 하셨다.

교회 인근에 중풍환자 한 분이 있어 전에 김경철 장로님께서 치료하신 적이 있었는데 효험을 느끼고 장로님을 고대하고 계신다고 하여 장로님은 목사님의 안내로 시술을 하러 가시고 남은 일행은 간간히 내리는 보슬비를 맞으면서 부락 주변을 살펴 보았다. 이번 여름이나 단풍이 드는 가을 쯤에는 남전도회 월례회 겸 야외예배를 이곳 강가에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여름에 오시면 이곳 특미인 민물생선 매운탕을 대접하겠습니다. 꼭 한번 다시 오시소."라는 경상도 사투리의 정감어린 목사님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일행은 북쌍마을을 뒤로 하였다.

제3회 충현부부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충현교회 성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회 충현부부교양대학이 오는 5월 8일에 개강한다.

성숙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는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기 위하여 이 대학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1. 프로그램

일 자	강 의 내 용	강 사
5월 8일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	이 종 윤 목사 (충현교회 위임목사)
5월 15일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	이 기 춘 박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장)
5월 22일	그리스도인의 가정문화의 극복	신 상 철 박사 (축령복음병원장)
5월 29일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이 근 후 박사 (이화여대부속병원 정신과장)

2. 등록안내

- 등록대상 : 부부동반(타교인, 불신자 환영)
- 등록기간 : 4월 22일부터
- 등록장소 : 소석관 102호(종합사무실)
- 등록비 : 부부당 5천원
- 강의시간 및 장소 : 오후 6시 30분~9시, 갈릴리 홀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설 명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들이 지켜야 할 가장 고상한 질서요 윤리도덕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1~4계명)과 인간에 대한 것(5~10계명)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힘써 지켜야 하는 보석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 문

1.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요약해 보시오.
2.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마22:35~40)?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충현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7 과 하나님의 계명

성경 : 롬 2:13~16

요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마19:17)

찬송 : 213, 379

제 39 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 40 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인생에게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제 41 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까?